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여수시, 자전거 친화도시 넘어 '자전거 도시'로 도약

자전거도로 29.3km 개설 · 공영자전거 대여소 10개소 추가 설치



대통령 표창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여수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를 넘어 '자전거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여수시는 자전거도로 29.3km를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구간은 만흥공원 옛 철길 연계 구간 0.6km, 옛 철길~죽림삼거리 구간 1.35km, 죽림~세포 구간

19.8km, 히든베이~예음리루 구간 4.8km, 소라면 장척마을 구간 0.3km, 해산동~국가산단 구간 2.43km이다.

여지만 갯노을길 추라방지 난간 0.7km, 옛 철길 인근 자전거통화로 4개소, 여수산단로 해산~화지 구간 0.6km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등은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32개소인 공영자전거 무단 대여소는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비가림막과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시의원·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출범해 자전거 관련 사업을 심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수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자전거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매월 1회 실시하는 자전거 캠페인과 자전거 초보자·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육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공유 플랫폼 '여수랑'과 해안을 끼고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 옛 철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작년 한 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여수시가 자전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관광지 6곳을 모바일티켓 한 장으로' 완도 투어패스 출시



완도군은 완도 유료 관광지 6곳을

모바일티켓 한 장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완도 투어패스' 상품을 개발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 투어패스는 구매자가 최초 사용일로부터 1일(24시간)동안 사용 가능하며, 가격은 대인 기준 정상가에서 45% 이상 할인된 9,900원이다.

구매는 아이폰, 가자고 등 10여 개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여행 예약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할 수 있다.

패스권 사용이 가능한 관광지는 완도타워, 청해포구 촬영장 모노레일,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이며, 옵션 상품으로 질러린 체험 할인권도 판매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투어패스 출시를 통해 완도 여행을 유도하고 아울러 도서 지역의 상품도 추가할 계획이다"며 "올해 시범 운영 후 문 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 상품을 본격 출시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해양치유산업 유료 체험 프로그램 및 2021년 완도국제해 조류박람회 입장권 등을 완도의 유료 관광지들과 결합해 관광객들의 방문 지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위기가정발굴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영암군은 빈곤 및 돌봄 위기 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라 신체적·노동적·효율적 대응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의 일환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운영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적·인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읍면당 30~50명 내외로 구성하

여 운영하며, 여기에는 생활밀착형 직인인 집배원을 비롯한 아파트관리인, 수도·가스검침원, 노인돌봄미, 요양보호사, 이·반장, 지역주민, 대학생 등 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은 2월중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읍·면단위에서 2인 1조로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그간 행정기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복지 위

기가정 발굴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민관협력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복지 정책 방향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축이 대세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영암군청 주민복지실(470-2126) 또는 관할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기간 연장 승인

고흥군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유자, 석류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4년 지정받은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가 2018년 만료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5년 연장 및 사업비 87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위 사항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고흥군은 유자·석류 국내 최대 생산지로 2014년 특구 지정에 힘입어 3개 분야(생산기반 혁신화, 가공유통 산업화, 관광홍보 활성화)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간부, 폭력 휘둘러 기소

전직 간부, 절도·횡령 사실 드러나기도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이하 지회)의 한 간부가 동료에게 폭력을 휘둘러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간부는 2018년 10월 동료 직원의 머리를 청소발대로 내려쳐 동료직원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최근 같은 지회의 전직 간부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절도, 횡령을 한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절도 및 횡령 액수는 수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노조 지회 설립 전인 2017년 5월에 한 여성노동자의 고발로 밝혀졌다.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주장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여성성차별 발언 및 직원 폭행이 일어난 이번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노조 지회가 그간 제기한 노동조합 탄압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적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노조 지회의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탈퇴, 퇴사하도록 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회사(주)오가닉클러스터가 내린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전 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각' 판정을 내려 징계 사유와 양형 모두 인정받았다.

또 이에 앞서 노조 지회가 회사의 면담이 불법이라고 고발해 실시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조사에서 2017년 12월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구례=박진호 기자

회순군,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가동



회순군이 15일부터 2019년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기동포획단원 30명을 권역별로 선발했다. 군은 11일 하니울문화스 포츠센터에서 단원을 대상으로 기동포획단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총포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회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포획단

이 활동한다.

군은 권역별 활동으로 포획단의 기동성을 높여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군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동성 향상이 민원 신속 대응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며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 만큼 농작물 피해가 감소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있는 군민은 읍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 비치된 해당 권역의 포획단원 명단과 연락처를 보고 신고하면 된다.

군은 2018년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으로 멧돼지 등 512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봉산면, 기해년 첫 이장회의 개최 눈길

마을중심 명품지역 가꾸기 다짐

담양군 봉산면은 지난 10일 봉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해년 첫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봉산면은 2년간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신입이장 4명(도고 차상호, 마항 김상근, 반원 이금자, 죽림 안해술)과 연임이장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올해 주요 군정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이장단장으로 연임된 제철마을 이영신 이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겠다"며, "봉산면 이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 3명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강화하고, 마을의 봉사자로서 마을중심 주민행복 명품지역을 이루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강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군

061. 393. 8981